

B-2 치아정출 유도술을 이용한 임상치관연장술

배영호*, 김병옥, 한경운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치은연하우식이나 치근이 파절된 치아의 수복치료시 흔히 치관연장술 시행을 필요로 하게 된다. 치조골삭제를 동반한 치주외과적 술식을 이용한 치관연장술은 인접치의 지지골을 희생시키고 인접치의 부조화를 이루는 치은외형으로 특히, 전치부에서 비심미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흔하다. 치아정출유도술은 치주외과적 술식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치아정출술은 단근치에 국한되며 적절한 치근의 길이가 요구된다는 점등 적응증이 제한되며 정출되는 치아의 치은 및 골연의 외형을 변화시킬 수 있어, 인접치와 조화되는 치은 및 골 외형을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치주외과 술식이 필요하게 된다(Ingber 1976 ; Biggerstaff 등 1986). 이러한 추가적인 외과술식을 피하기 위해, 치아정출유도술과 함께 반복적인 치은섬유절단술을 동반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아정출유도술은 심미성이 요구되는 부위의 임상치관연장술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본 임상증례는 전치부에서 치아정출유도술을 이용하여 임상치관연장술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을 보고한다.